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54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8월 27일)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서울 강남 봉은사는 10월 5일 경내 상월선열당과 구생원에서 현판식을 거행했다. 이날 현판식은 회주 자승 스님이 역대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상월결사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사부대중이 함께 도모하기를 염원하며 마련됐다.

“역대 종정예하 가르침 새겨 불교중흥을”

서울 봉은사, 상월선열당 현판식
한암 · 청담 · 성철 대종사 등
역대 종정예하 친필들 현판으로
상좌스님 등 스승 가르침 되새겨
자승 스님 “시대의 법문 상기하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역대 종정 스님들의 수행정신과 가르침이 서울 봉은사를 가득 채웠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는 10월 5일 경내 상월선열당과 구생원에서 현판식을 거행했다. 이번 현판식은 봉은사 회주이자 상월결사 회주인 자승 스님이 역대 종정 스님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상월결사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사부대중이 함께 도모하기를 염원하며 마련됐다.

상월선열당 안팎과 구생원 외부에 걸린 현판은 모두 20개다. 조선불교조계종 초대 종정 한암 스님과 조계종 제1대 종정 효봉 스님을 비롯해 2대 청담 스님, 3 · 4대 고암 스님, 5대 서옹 스님, 6 · 7대 성철 스님, 8대 서암 스님, 9대 월하 스님, 10대 혜암 스님, 11 · 12대 법전 스님, 13 · 14대 진제 스님, 15대 성파 스님 등 역대 종정 스님의 정신이 담긴 글귀가 현판으로 구현됐다. 이밖에도 조계총림 송광사 초대 방장 구산 스님, 탄허 스님의 친필이 현판으로 제작됐다.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의현 스님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원택 스님, 혜거 스님, 동광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서울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등 역대 종정 스님과 인연이 있는 스님들과 상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큰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현판 제막에 앞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이번 현판식은 역대 종정 스님들과 제방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겨 후학 지도와 불교중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 참뜻이 발현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화사 방장 의현 대종사는 이번 불사를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지난 것을 복습해 새것을 알겠다는 발상으로 시작된 이번 대작불사의 법력과 위신력으로 중생이 제도되고 우리국민뿐 아니라 세계 인류가 안락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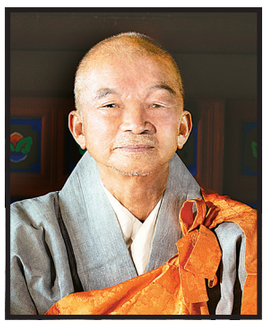
현판을 한참 바라보던 해인사 방장 원각 대종사도 “이 좋은 도량에서 역대 종정 스님들의 친필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어 기쁘다”면서 “특색 있는 글씨들로부터 좋은 법력을 이어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바세계를 교화해 중생을 구제한다는 교세제민(敎世濟民),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불기자심(不欺自心), 그 마음 그대로 부처를 뜻하는 즉심시불(卽心是佛), 법신과 열반의 네 가지 덕인 상락아정(常樂我淨). 현판을 가리고 있던 하얀 천이 하나둘 걷히며 큰스님들의 남긴 문구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자 현판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큰 박수를 보냈다.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은 “오늘 선보인 역대 종정 스님들의 글귀에는 스님들의 삶뿐 아니라 조계종의 희노애락이 함께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종정 스님들이 지금 계신다면 시대에 걸맞게 종단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법문을 해주셨을 것”이라면서 “스님들이 남긴 글귀를 통해 합심, 미래 후학들 키워내고 불교중흥을 이뤄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제20세 종정 지낸 지허당 지용 대종사 원적

10월 2일 주석처 금둔사서
순천 선암사에 분향소 설치
영결다비식 10월 8일 엄수



태고종 제20세 종정을 지낸 지허당 지용 대종사<사진>가 10월 2일 오후 5시 50분 주석처 금둔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7세, 세수 83세.

분향소는 태고총림 선암사에 설치됐으며, 영결 · 다비식은 10월 8일 오전 10시 선암사에서 종단장으로 치러졌다.

지허 대종사는 1956년 선암사서 지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2년 전주 관음선원서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경남 합천 해인사 용탑선원과 양산 통도사 극락선원, 통영 미래사 토굴 등서 용맹정진했으며 종파를 초월해 고암 · 경봉 · 전강 · 구산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후 순천 선암사로 돌아와 폐허가 된 비로암에 토굴을 짓고 3년간 두문불출하며 수행에 전념한 지허 스님은 선암사 칠전선원서 차밭을 손수 가꾸고 법제를 재현하는 등 한국차문화 중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개진했다. 1994년 선암사 제3세 주지 소임을 맡아 적묵당과 조사당, 선각당 불사를 이끌었으며, 성보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사격을 높였다. 1979년 7월에는 순천 금둔사지에 금둔사를 복원, 중창 불사에 매진했다.

태고종 종권수호위원회 위원(2002), 제11대 중앙종회의원, 태고중앙선원장(2005), 선암사 부방장, 교육위원회 위원, 용연사 주지, 제2 · 4 · 5대 원로회의 의원을 지냈다.

2020년 7월 태고종 제20세 종정으로 추대됐으며, 수행자들을 제접하며 종풍 진작에 힘썼다. 2022년 7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했지만, 항상 수행자로서 정진을 잃지 않았다.

〈영결 · 다비식 차주 상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종사 가르침이 벌써 그립습니다”

지허 대종사 분향소에 전국서 추모 행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10월 4일 조문
“대종사의 지혜 말씀 못 들어 안타까워”



전국 태고종도들이 지허 대종사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10월 2일 순천 금둔사에서 원적한 태고종 제20세 종정 지허 대종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은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승범)에 지난 3일 분향소를 마련하고, 전국의 태고종도와 주요 내 · 외빈의 조문을 받았다.

분향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중요 정부부처 수장들의 조화가 도착해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했다.

10월 4일에는 저녁 늦게 분향소에 도착한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종단의 주요 소임자들의 조문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前 주지 시각 스님,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월인 스님 등 선암사 대중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또한, 백련사 회주 운경 스님, 원로회의 설산 스님, 백련사 주지 동허 스님, 초심원장 금담 스님 등이 조문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평소 자애롭던 그 미소를 잊지 못하는 후학들은 아직도 생사의 굴레에서 대종사를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어 슬프고 황망할 뿐”이라며 “이제 종단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 더더욱 대종사의 가르침과 꾸짖음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데 다시는 크신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참을 수 없는 슬픔이 가득하다”고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다.

선암사 前주지 시각 스님은 “평소 큰스님의 수행력을 통해 제자들을 경책하시고, 선암사와 종단의 미래에 대해 늘 걱정하셨는데 이렇게 큰 비보를 접하게 되었다”며 “이제 선암사가 제 주인을 찾고 안정이 되어가는 모습을 큰스님께서 보여드려야 하는데 스님을 보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우 스님 강설 | 248쪽 | 값 22,000원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무량행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만선동귀집 총송》 출간!

‘만선(萬善)’은 만 갈래의 선행, ‘동귀(同歸)’는 한 가지 길을 뜻한다. 만 갈래라 함은 서로 다름이겠고 한 가지라 함은 서로 같다는 것인데, 늘 다르고 늘 같으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음을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영명연수(永明延壽, 904~975) 선사는 『만선동귀집(萬善同歸集)』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름을 빌려 묻는다면 항하사와 같은 수로 대답할 수 있거니와 간략히 한마디로 하면 만선동귀이다.”

조계종 출판사 지혜와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구입문의 : 불교전문서점 향전 www.jbbook.co.kr | 02-2031-2070